

# 판권 내주고 지원비 반토막...쪽박 떠넘기기?

막대한 제작비 불구 종종 큰손실 위험부담 최소화...방송만 하기로 판권 가진 외주사는 쪽박 vs 대박

MBC가 하반기 드라마 제작 및 방영과 관련한 '판'을 바꾼다. 7월부터 미니시리즈 시간대를 외주제작사에 판매해 방송사는 방영만 하고, 판권은 제작사가 갖는 방식 등으로 드라마 방영 및 제작 환경을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방송사 측은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외주제작사의 제작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이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6일 방송관계자들에 따르면 MBC는 7월

월화·수목 미니시리즈부터 이 드라마들이 방송하는 시간대(오후 10시~11시)를 외주제작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방송사는 외주제작사가 만든 드라마를 해당 시간대에 내보내는 방영권만 보유하고, 제작사에게 해외 판권이나 다시보기 서비스(VOD) 등의 권리를 넘긴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광고 판매를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MBC는 또 외주제작사에 제공하는 제작비를 5000만원에서 1억 원 선으로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개 회당 3억 원 이상 제작비가 투입되는 드라마의 경우 방송사는 약 2억 원을 지원한다. 모자라는 제작비는 제작사가 PPL(간접광고) 등을 통해 충원하거나, 10%, 20% 등 일정 시청률에 도달할 때마다 제작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드라마에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고서도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크게 손실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방송사는 드라마 제작비를 줄여 위험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광고판매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외주제작사는 이전보다 부담해야 하는 제작비가 늘어나게 된다. 드라마 해외 판권 판매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VOD 등 부가서비스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드라마 중영 후에 정산이 가능해 외주제작사로서는 제작비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커진다. 반면 드라마가 대박이 나고, 해외에서 판권이 높은 가격에 팔릴 경우 제작사로서는 전례 없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된다.

MBC는 드라마 연출의 문호도 넓힐 계획이다. KBS와 SBS와 달리 MBC는 유난히 자사 소속 연출자를 고집해왔지만 하반기부터는 프리랜서 연출자 기용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방송 중인 월화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와 수목드라마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가 각각 2%, 4%대의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어 MBC로서는 이번 개혁을 통한 분위기 쇄신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하다.

MBC의 이 같은 변화에 KBS와 SBS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을 모은다. KB S 양승동 사장이 선임되고 조직개편이 한창 진행중이며, SBS는 지상파 3사 중 가장 안정적인 성적을 내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뉴스인사이드

## 한한령 해제 언제쯤

베이징 영화제 한국영화 7편 초청 중 양제츠 위원 방한 후 변화 감지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게 될 것이다. 믿어 달라."

3월30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위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내놓은 발언이다. 2016년 한국 정부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한한령' 등과 관련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측의 노력을 담아낸 말로 해석됐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과연 이 같은 상황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 "드라마도..., 영화도..., 팬미팅도..., 여전히..."

15일 막을 올린 중국 베이징 국제영화제는 '군함도'와 '아이 캔 스피크' 등 7편의 한국영화를 초청 상영 중이다. 그 이전과 달리 한한령의 효과로 지난해 상하이 국제영화제와 함께 단 한 편의 한국영화도 초청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그만큼 나아진 것이라는 평가와 나아가 조만간 한한령의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하지만 일부 한국영화 관련 행사가 취소되거나 무산되기도 했다. 또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콘텐츠가 뚜렷하게 중국시장에 공식 유통된 사례도 극히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이 같은 전망은 다소 성급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많다.

중국 한류사업을 펼쳐온 한 에이전트는 "여전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이 현지에서 방영되거나 상영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연기자들이 출연한 현지 작품 역시 마찬가지다. 배우를 비롯한 한류스타들의 CF 등 광고 계약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면서 "스타 팬미팅이나 가수 콘서트는 더욱 요원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현지 개봉을 위해 중국 당국의 상영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한 영화의 관계자 역시 "심의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면서 "아무래도 자국 문화콘텐츠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차원의 전라까지 포함된 규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국과 교류해온 중국 측이 이를 통해 쌓아온 콘텐츠 제작 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한류업계 관계자들은 양제츠 정치국위원의 방한 이후 관련 분위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중국을 다녀온 또 다른 영화 관계자는 "한한령의 와중에도 콘텐츠 제작 스태프의 교류는 끊이지 않았다"면서 "한국 로케이션을 결정할 현지 작품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 관계자들 역시 양제츠 정치국위원의 방한을 계기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를 거쳐 내년부터는 확연히 상황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에이전트도 "실제로 양제츠 위원 방한 이후 현지 업계 관계자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최근 전지현이 출연한 CF가 방영됐고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스토리 리메이크 판권 문의가 이어지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

연예현장.jpg

'살인 미소' 지현우·이은우 "살인소설, 많이 봐주세요"



연기자 지현우(왼쪽)가 25일 개봉하는 '살인소설'로 7년 만에 영화로 관객을 만난다. 영화는 정치를 소재로 삼은 서스펜스 스릴러. 지현우는 오만석을 궁지로 몰아넣는 청년 순태 역을 맡았다. 이은우(오른쪽) 등 함께 출연한 배우들과 16일 열린 시사회에 참석한 지현우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캐릭터를 준비할 때 마침 청문회가 열리더라. 청문회를 보면서 연기 연습을 했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전, 우리 영화를 보시고 좋은 정치인에게 투표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친근한 매력과 신뢰감 주는 연기로 나란히 영화 팬들의 사랑을 받는 마동석(왼쪽)과 유해진이 5월 원톱 주연작으로 흥행대결을 벌인다. 사진제공 | 만나푸르나필름·코코너

## '챔피언' 마동석 vs '레슬러' 유해진

흥행 보증수표 두 배우...5월 격돌

좀처럼 안티를 찾기 어려운 배우 유해진과 마동석이 5월 극장에서 맞붙는다. 특유의 친근함, 어떤 역할을 맡아도 대중에 신뢰를 주는 매력으로 인정받는 두 배우가 나란히 원톱 주연영화를 내놓고 흥행 대결을 벌이게 됐다. 유해진이 5월9일 '레슬러'(감독 김대웅·제작 만나푸르나필름)를 내놓는 가운데 마동석 역시 5월 초 개봉을 준비하는 '챔피언'(감독 김용완·제작 코코너)으로 관객 앞에 다시 나선다. 최근 들어 주연영화를 통해 흥행력을 입증시켜온 두 배우는 이번 작품을 통해 자신의 강점이자 매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유해진은 2년 전 '럭키'의 700만 성공 이후 지난해 '공조', '택시운전사', '1987'로 이어진

흥행 행진을 '레슬러'로 이어간다는 각오다. 전직 레슬링 선수이지만 지금은 홀로 아들을 키우는 '아들바보', 살림꾼 귀보가 그의 역할. 영화는 귀보가 예기치 않은 인물들과 얽히면서 겪는 일을 그린다. 나문희가 유해진의 어머니 역으로 출연하는 가운데 성동민, 이성경 등 화려한 출연진이 유해진의 곁에 서 있다. 마동석도 자신의 장기를 십분 살린다. '챔피언'은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돼 팔씨름 세계 챔피언을 꿈꾸는 인물, 마크가 주인공. 마동석은 팔씨름을 매개로 헤어진 가족을 찾아 고국으로 돌아와 관계를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을 섞어 그려낸다.

유해진과 마동석이 내놓는 영화는 마침 5월 가정의 달의 분위기와도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내용이라 더욱 주목받는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 위기를 겪는 주인공의 모습을 유쾌하게 담

아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분위기도 작품에 녹아있다. 가족 단위 관객이 부담 없이 선택해 즐길 수 있는 '가족영화'의 성격이 짙다.

유해진은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가 주는 건강함 느낌이 좋다"고 '레슬러'의 강점을 소개했다. 연출을 맡은 김대웅 감독 역시 "유해진이 지난 편안함과 유머러스한 매력은 주인공 귀보 그 자체였다"고 신뢰감을 드러냈다.

출연하는 영화마다 작품과는 무관한 배우들로부터 이색적인 이벤트 제안을 받아온 마동석은 이번에는 할리우드 액션스타 드웨인 존슨으로부터 팔씨름 대결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한미 근육질 스타의 팔씨름 빅매치 예고가 '챔피언'을 향한 관심까지 동시에 끌어 올리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해시태그 킷



마스크 패션도 남다른 공효진

배우 공효진의 모습이 '유포'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막고, 스카프는 머리에 둘러 머리카락을 보호한다. 미세먼지가 심각하지만 아침 산책을 빼놓을 수 없는 그가 중무장을 하고 집을 나섰다. "현대인의 초상. 씩씩"이라는 공효진의 말처럼, 마스크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환경이다. 팬들은 그의 스타일링에 눈을 보낸다. 포블거리는 펄 헤어스타일과 스카프를 머리에 두르는 센스 등 '산책복'도 패션니스타답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포스트 #공효진 #미세먼지 #집밖은위험해

내 마음에 작품 하나

최리·'대니쉬 걸'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사랑 2년차 배우 최리의 '자극제'

데뷔 2년째를 맞은 연기자 최리는 연기를 향한 의욕이 넘친다. 그만큼 자신을 자극시키는 작품도 자주 만나고 있다. 그런 최리가 첫손에 꼽는 작품은 '대니쉬 걸'. 배우를 자신의 길로 정하는 과정에서 만난, 잊을 수 없는 영화다.

최리는 "연기자 입장에서 배우가 오로지 작품 속 그 캐릭터로 보이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며 "'대니쉬 걸'과 그 주인공은 나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줬다"고 했다.

극의 배경은 1926년 덴마크 코펜하겐. 풍경화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에이나르 베게너는 야심만만한 초상화가인 아내 게르타와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둘은 부부이기 전에 서로의 작품에 영감을 주는 파트너이다. 어느 날 게르타의 초상화 모델이 되어 주던 발레리나가 자리를 비우게 되자 게르타는 남편에게 대역을 부탁한다. 두 레슬을 입고 캔버스 앞에 선 에이나르는 지금껏 느낀 적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든다.

영화는 실화 소재다. 에이나르는 훗날 신원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처음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인물로 기록됐다. 남편이 성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내의 묵묵하고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낸다.

예술가들의 삶,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사랑, 정체성의 변화까지 받아들이는 몽환한 이야기는 그대로 최리의 가슴에 남았다. 그 역시 어린 시절부터 무용을 해왔고 대학에서도 한국무용을 전공한 덕분에 누구보다 '대니쉬 걸'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도 했다.

영화에서 화가 에이나르를 연기한 에디 레드메인은 최리가 숨김없이 '팬심'을 드러내는 배우다. 최리는 '대니쉬 걸'은 물론 에디 레드메인이 고스틴은 호경 박사를 연기해 미국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또 다른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도 최고의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해리 기자